

【 국어 25문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문2】

(가) 지상에는
아홉 켄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칸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켄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구 문 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어나면
육 문 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 문 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이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 문 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박목월, 「가정」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막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 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문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 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건디는 것으로 살아 온 제비,
거리에선 아직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나희덕, 「못 위의 잠」

(다)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덕국을 끓이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손님처럼 마루에 앉히시고
흰 사기그릇이 앉아 있는 밥상을
조심조심 만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국물 속에 떠 있던 별들
어떤 때는 숟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다.
숟가락과 별이 부딪치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어머니의 눈에서
별빛 사리가 쏟아졌다.

-공광규, 「별국」

【문 1】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 (가)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 보 기> —

박목월의 시 '가정'은 기독교적인 맥락, 즉 천상의 낙원(에덴동산)을 떠나 지상에서 이브와 결혼하고 노동하며 땀 흘리는 아담형의 아버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담을 낙원에서 추방한 뒤 가족을 위하여 지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라 하셨고, 이브에게는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맛보라 하셨다. 그것은 지상에 사는 아담과 이브들에게 시련이자 동시에 행복이다.

- ① '눈과 얼음의 길'은 가족을 위해 '지상에서 흘린 땀'을 의미한다.
- ② '아랫목에 모인'은 시련 속에서도 느껴지는 '가족의 행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은 아버지들이 지상에서 겪어야 하는 '시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문수가 다른 아홉 켄레의 신발'은 '아버지가 부양해야 할 자식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 2】 다음 중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매개로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대립적 시어의 반복으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대상에게 친근한 어조로 말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3~문5】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종(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나)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荻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온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다) 뒷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찼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피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릿대를 훌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싣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 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밑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문 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에는 화자가 갈등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② (나)와 (다)의 화자는 가난하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 ③ (가)~(다)의 화자는 속세와는 다른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 ④ (가)~(다)의 화자는 사회 생활에서 실패한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문 4】 위 글의 ㉠~㉣ 중 문맥상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홍진 ② ㉡공명 ③ ㉢임천 ④ ㉣문서

【문 5】 위 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제1수-유교적 가치관을 중시 여긴 걸로 보아 작가가 양반임을 알 수 있다.
- ② 제2수-화자가 세속적 욕망을 부정하며 오랜 세월 공명을 좇던 삶을 후회하고 있다.
- ③ 제3수-화자가 아직 속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자연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다.
- ④ 제4수-화자가 내적 갈등을 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6~문7】

(가)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운논다 혼다마는, [I]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혼노라.

보리밥 꽃느물을 알마초 먹근 후에
 바회긔 몹그의 슬긔지 노니노라. [II]
 그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잔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브라보니
 그리든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III]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닛다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巢父許由)] 약똥터랴. [IV]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랴.
 -윤선도, 「만흥」

(나)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발이 한참같이
 뺨이로 파고
 호미론 길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문 6】 (가)의 밑줄 친 시어와 가장 잘 통하는 것을 (나)에서 찾으려면 무엇인가?

- ① 창 ② 김 ③ 구름 ④ 강냉이

【문 7】 (가)의 각 연에 어울리는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 - 안분지족(安分知足)
- ② [II] - 안빈낙도(安貧樂道)
- ③ [III] - 이심전심(以心傳心)
- ④ [IV] - 강호한정(江湖閑情)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8~문9】

(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 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중략) 그 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기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군데군데 찌어진 경성드못한 눈썹이 울울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술에 양미간에는 여러가닥 주름이 잡히고, (중략) 삼십 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삼년 가량은 늙어진 듯하였다.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하였다. (중략)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이 풀려나왔다.

(나)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중략)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중략)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가는 이의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중략)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별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관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율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리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라)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중략)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나는 놀란듯이 벌린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중략)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제 그렇게도 변하는지요? 그 술 많던 머리가 홀렁 다 벗어졌더마. 눈은 폭 들어가고, 그 이들 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열 병 따라뉘고 헤어졌구마.” (중략)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지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웃음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A]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현진건, 「고향」

【문 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인물의 행적을 요약하기의 방법으로 서술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나)-보여주기 방식으로 서술하여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 ③ (다)-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액자식 구성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라)-서술자와 인물의 대화를 통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공감과 연대감을 보여준다.

【문 9】 위 글에서 [A]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집약해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②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산업화로 인해 문명화된 고향을 형상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작가가 당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0~문11】

생활에 여유를 주는 공간이라면 더 큰 공간일수록 좋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국적 공간 개념에는 그와 같은 여유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큰 공간일수록 좋다는 생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왜 여유 공간의 공간을 넓은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국토가 너무 좁기 때문이었을까? 넓은 공간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을까? 이러한 부정적 해답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가치 부여를 한다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상적 근거가 전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인간은 결코 자연을 정복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궁극적인 가치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공간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공간 개념을 환경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어떤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까? 건축 행위라는 것은 자연 환경을 인간의 생활 환경으로 고쳐 가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은 계속 더 적극적인 건축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요구해 오는 사람들에게 건축은 아무 거리낌없이 건축 행위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팽창 위주의 건축 행위가 무제한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부딪치게 되었다. 인간의 요구 조건만이 아니라 자연의 필요 조건도 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새로운 공간 설계를 원하는 고객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건축 행위가 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내느냐도 생각해 봐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네거티브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네거티브즘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 보는 사고 방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네거티브즘은 결코 건축 행위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되 긍정적인 면과 밝은 면, 또는 건축주의 요청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에서 제외되기 쉬운 중요한 측면이나 인간 중심적인 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네거티브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건축 행위가 전제하고 있는 기본 가치관에 관한 문제가 된다. 네거티브즘은 하나의 건축 사상 내지는 건축 철학적 입장이다.

-김수근, 「건축과 동양 정신」

【문10】 ‘네거티브즘’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지향한다.
- ② 건축주의 요구 조건을 충실히 수행한다.
- ③ 가능한 한 넓은 여유의 공간을 확보한다.
- ④ 인간의 요구 조건 충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문11】 위 글의 글쓰기가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시조는?

- ① 구렁에 낚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 알을 이 업스니 그 아니 조홀소냐 /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실람겨워 호노라.
- ②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三月) 동풍(東風) 다 보니고 / 낙목한전(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노다. /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 뿐인가 호노라.
- ③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야 草廬三間(초려삼간) 지어내니. / 나 혼 간 달 혼 간에 淸風(청풍) 혼 간 맞겨두고. / 江山(강산)은 드릴 되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 ④ 청산(靑山)은 옛데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 유수(流水)는 옛데하야 주야(晝夜)에 굶디 아니노고. /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2~문14】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緣分(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므음 이 스랑 건줄 더 노여 업다.平生(평생)에 願(원)하 요디 혼더 네자 하얏더니, 늣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 논고. 엇그제 님을 괴셔 廣寒殿(광한전)의 올랐더니, 그더디 엇디하야 下界(하계)에 내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켜연 디 三年(삼년)이라. ① 胭脂粉(연지분) 잇니마는 눈 위하야 고 이 홀고. 므음의 미친 실음 疊疊(텃텃)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人生(인성)은 有限(유한)혼더 시 립도 그치업다. 無心(무심)혼 歲月(세월)은 물 흐르듯 호노고 야. 炎涼(염량)이 때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 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가] 東風(동풍)이 건듯 부러 積雪(적설)을 헤터내니, 窓(창) 밝기 심근 梅花(미화) 두세 가지 피여세라. 𩇵득 冷淡(냉담)혼더 暗香(암향)은 므스 일고. 黃昏(황혼)의 돌이 조 차 버 마티 빗쳐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 신가. 더 梅花(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더 보내오져. 님 이 너를 보고 엇터다 너기실고.

꽃디고 새 님 나니 綠陰(녹음)이 짙렸느디, 羅幃(나위) 寂寞(적막)호고, 繡幕(슈막)이 뷔여 있다.芙蓉(부용)을 거 더 노코, 孔雀(공작)을 돌려 두니, 𩇵득 시림 한디 날은 엇디 기듌든고. ② 鴛鴦錦(원앙금) 버혀 노코, 五色線(오식선) 플터 내여, 금자회 건화이셔 님의 옷 지여 내니, 手品(슈품)은크니와 制度(제도)도 𩇵줄시고, 珊瑚樹(산호슈) 지게 우히 白玉函(백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 오려 님 겨신 더 브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홀시고. 千里 萬里(천리 만리) 길홀 뉘라셔 차자갈고. 니거든 여려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다] 흐르람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널 제, 危樓(위루)에 혼 자 올라 水晶簾(수정렴) 거든말이, 東山(동산)의 돌이 나 고, 北極(북극)의 별이 비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 로 난다. 淸光(청광)을 쥐어 내여 鳳凰樓(봉황누)의 붓티 고져. 樓(누) 우히 거러 두고, 八荒(팔황)의 다 비쳐여, 深山窮谷(심산궁곡) 점나뎡티 밍고쇼셔.

乾坤(건곤)이 閉塞(폐식)하야 白雪(백설)이 혼 빗친 제, 사름은 크니와 놀새도 그쳐 있다. 蕭湘南畔(쇼상남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樓高處(옥누고처)야 더욱 닐러 므스하 리. 陽春(양춘)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더 쏘이고져. 茅簷(모침) 비췌 玉樓(옥누)의 올리고져. 紅裳(홍상)을 니미 츄고, 翠袖(취슈)를 半(반)만 거더, 日暮脩竹(일모슈독)의 햐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희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靑燈(청등) 거른 것터 鉤空篋(훤공후) 노하 두 고, ③ 畚의나 님을 보려 틱 맞고 비겨시니, 鴛鴦(원앙)도 츄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셀고.

흐르도 열 두 때 혼 돌도 설흔 놀, 저근덧 생각마라, 이 시 립 닛자 하니, 므음의 미쳐 이셔 骨髓(골슈)의 빼터시니, ④ 扁鵲(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호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쇠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디 족족 안디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 뜨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호노라.

- 정철, 「사미인곡」

【문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4음보의 리듬감이 나타난다.
- ②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 ③ 상대방에 대한 예찬을 주제로 한다.
- ④ 화자는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문13】 [가]~[라] 중, ‘선정(善政)에의 당부’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포함된 것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문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치장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 ② ㉡ : 정성을 다하여 임의 옷을 만들고 있다.
- ③ ㉢ : 꿈에서라도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
- ④ ㉤ : 뛰어난 의사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문15】 밑줄 친 ‘비’의 속성이 나머지 셋에 비해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비가 옵니다. / 다정한 손님같이 비가 옵니다. / 창을 열고 맞 으려 하여도 / 보이지 않게 속삭이며 비가 옵니다. // 비가 옵 니다. / 뜰 위에, 창 밖에, 지붕에, / 남모를 기쁜 소식을 / 나 의 가슴에 전하는 비가 옵니다.
- ② 길고 눈부신 바늘처럼 / 비는 또 내 / 얼굴에 꽃힌다 / 수백 씬의 바늘이 쏟아져 / 정수리와 명치, 오금에 / 뽕뽕하게 박힌 다. // 죄인처럼 묶여 / 뽕뽕하게 침(針)을 꿸고 서 있는 / 나 // 단죄.
- ③ 짐을 매어 놓고 떠나려 하시는 이 날, / 어둔 새벽부터 시름 없이 내리는 비. / 내일도 내리오소서 연일 두고 오소서 // 잠 았던 그 소매를 뿌리치고 떠나신다. / 갑자기 꿈을 깨니, 반가 운 빗소리라. / 매어 둔 짐을 보고는 눈을 도로 감으오.
- ④ 비는 고요한 노래를 불러 / 벚꽃 향기 풍기는 황혼을 데려온 다. // 비는 어디서 자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 순이 우리가 촛 불을 가지고 마주 앉을 때 // 비는 밤 깊도록 창밖에서 종알거 리다가도 / 이윽고 아침이면 어디론지 가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6~문18】

현대 사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소비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고,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커다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인문학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 실질적인 지침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핵심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인문학적 사유가 지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치밀하고도 분석적인 정신노동이며,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발된다. 인문학 교육은 이러한 습관을 학생들이 체득하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업이 독서와 토론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학생들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글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을 제시해 보고, 자신의 견해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청취할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인문학적 사유의 훈련을 위해서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그에 대한 전문가의 비판과 평가를 받아 보는 경험도 무척 중요하다. 추상적인 인문학의 주제와 실제 세상에서의 중요한 문제들 사이에 관련을 맺어 줌으로써 인문학 수업은 더욱더 흥미로워질 수 있다.

(나)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이었던 로저 스미스(Roger Smith)는 인문학 교육의 예찬론자였다. 그는 인문학 교육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혁신의 기본 요소인 창조성을 높이 평가하는 안목을 키워 주며,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대인 관계에 도움이 되고, 질적으로 우수한 것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 준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전혀 다른 것들 사이의 관계를 볼 줄 알고, 이렇게 서로 연관성 없어 보이는 것들을 결합해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술과 문학, 역사와 같은 인문학에서 배양하는 능력이며, 바로 이것이 ‘성공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 요즘과 같은 기업 경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라고 역설했다.

(다) 그런데 많은 인문 학자들은 현대 기술이나 기업 활동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들은 기술이 시장 지향적이며 불가치적이고 피상적임에 비해, 인문학은 인간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며 근본적이라는 식으로 기술과 인문학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인문학이 응용 학문에서 추구하는 ‘실용’과 무관한 ‘순수’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문학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지식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지식과 문화가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지금, 순수와 응용의 경직된 구분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고 학문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라)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적 사유의 ‘실용성’(확장된 의미로서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문학이 자본 앞에 굴복하는 것도,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에 항복하는 것도 아니다. 인문학의 ‘실용성’을 밝히고 이를 교육에 적극 도입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고, 이는 바로 인문학의 본령(本領)과 직결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문16】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중심 화제의 특성을 구체화하여 진술하고 있다.
- ② (나)-전술한 논지를 인용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다)-화제를 전환하여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라)-논지를 정리하여 글을 쓴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문17】 면접시험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것이다. 위 글의 논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인문학 고유의 전통을 정비하고 이를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 ② 인문학 연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③ 인문학 이외의 분야와 교류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 ④ 인문학 스스로 삶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18】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류(分類) ② 분석(分析) ③ 세분(細分) ④ 양분(兩分)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9~문20】

(가) 편견은 집단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때로는 중대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종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므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건 분석과 시책에 관한 실천적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나) 편견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것으로, 특히 유년기와 소년기에 학습하게 된 편견은 평생을 통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 치유책 중의 하나는 어린 시기부터 사회화 기구 특히 가족이 솔선해서 아동들에게 편견을 주입시키지 않고 교육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편견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득력에 있어 대중매체는 개인적 접촉보다는 효과가 미약하다. 하지만 인종 편견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영화가 강연의 효과보다 훨씬 더 영속성이 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다) 편견을 줄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타 집단 성원과의 접촉을 들 수 있다. 접촉가설에 의하면 상이한 집단들 간의 접촉은 집단 상호간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질적인 집단 성원들과의 접촉은 편견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고정 관념에 의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자극 대상과의 익숙함은 자극 대상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낳는다는 것이다.

(라) 이처럼 편견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모든 상황에서 원만하게 실현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 제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인종, 성, 종교, 나이,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요인들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법률을 입법화하는 것도와 같은 배경 때문이다.

(마) 차별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면 소수 집단 성원들의 삶에 있어 편견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소수 집단에 대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유해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들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억제될 수 있다. 물론 차별에 반대하는 입법화가 차별 그 자체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차별 행위의 빈도와 가혹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바) 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은 사회 규범을 재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서 법의 제정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며 또 어떤 종류의 행동이 수용되지 않는지를 규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편견을 지닌 개인의 차별적 행동이 규범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다면, 개인들은 쉽사리 그러한 행동을 자행하기 어렵다.

(사) 법에 동조함으로써 차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편견 없는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태도 영향을 미친다. 차별을 하지 않는 행위가 하나의 습성처럼 일상적이 된다면 법의 제제는 약해지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차별 행위를 피하게 된다. 따라서 편견 없는 태도를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문19】 위 글을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다), (라)(마)(바)(사)
- ② (가)(나), (다)(라), (마)(바)(사)
- ③ (가), (나)(다)(라), (마)(바)(사)
- ④ (가)(나), (다)(라)(마), (바)(사)

【문20】 위 글에서 언급한 법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 행위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
- ② 법은 사회적 규범을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 습관화하는 데 기여한다.
- ③ 법은 문제적 행위의 제재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④ 법은 개인이 입은 손해나 피해를 규정에 따라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문21】 밑줄 그은 말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라면은 냄비에 끓여야 맛이 난다.
- ② 봄이 되니 아물아물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 ③ 그는 방안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 ④ 어릴 적에 우리는 봉숭화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22~문24】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어린 장국진은 달마국의 침입으로 부모를 잃는다. 죽을 고비에서 청의동자의 도움을 받아 여학도사의 제자가 되어 도술을 배운다. 그 후 장원 급제하여 천자의 도움으로 계양과 혼인하고, 병부상서 유봉의 딸과도 혼인을 한다. 천자가 승하한 뒤 이참의 참소로 유배를 가다가 달마국에 잡혀 죽을 고비를 맞는다.

며칠이 지나도 국진의 신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이 위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하여야 한단 말인가.

이때 어려서부터 닦아 온 천문지리가 누구보다 능통한 이 부인이 천기를 보고 있던 터라, 남편의 이런 사실을 깨닫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 더욱이 옆에 있던 유 부인 역시 남편의 위험에 애통해하니, 장 승상이나 왕씨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울 따름이더라. 육도삼략과 손오 병법에도 능통한 이 부인은 생각 끝에 결연히 일어서더니, 달마국 전장으로 달려가 병을 앓는 남편을 구하고 이 싸움을 결단 지으리라 결심하더라.

이 부인은 즉시 남장을 하고 머리에 용인 투구를 쓰고, 몸에 청사 전포를 입고, 왼손에 비린도, 오른손에 활기를 들고는, 시부모와 유 부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필마단기로 달마국을 향하여 집을 떠나더라. 유 부인은 멀리 전송을 나와 이 부인의 전도를 근심하며, 봉서 한 통과 바늘 한 쌍을 이 부인에게 내어 주더라.

그리고 이 부인에게 말하되,

“이것을 가지고 동정호 물 건널 제 물에 던지면 용왕 부인이 청할 것이니, 들어가 보옵소서, 동정호 용왕은 첩의 전쟁 부모이니 부모가 보오면 반가워할 터요, 이제 가장 좋은 선약(仙藥)을 얻어 가야 승상의 목숨을 구할 것이요. 다음은 선녀 한 쌍을 얻어 가야 천원 왕과 달마 왕을 잡으리라.”

하니, 이 부인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질풍처럼 달리더라.

동정호에 왔을 때 이 부인은 유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여 용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자, 용왕 내외가 반가워하며 만년주(萬年酒)를 권하더라. 그리고는 유 부인의 말대로 선약과 선녀 한 쌍을 이 부인에게 내리시며,

“천원 왕과 달마 왕은 욕이나 뵈옵되 죽이지는 마옵소서. 두 사람은 천상 선관으로 인간에 적거(謫居)하였으니, 만일 죽이면 일후에 원(怨)이 되리라.”

하고 교시하더라.

또한 용왕 부인은 선녀들에게 분부하여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특별히 당부하더라. 이렇게 하여 이 부인은 용궁에서 나와 전장으로 질풍같이 달려가니, 마음이 든든하기만 하더라.

이 때 명나라 진영은 적병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있었으며, 진문은 열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으니, 적병은 이것을 깨칠 속셈으로 그 준비에 분주하더라.

이를 본 이 부인은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투구를 고쳐 쓰고, 비린도를 높이 들어 만리청총마의 고삐를 바짝 쥐어 잡고, 좌우에 따라온 선녀들은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라고 분부하고 즉시 급하게 채찍질을 하니, 만리청총마는 화살처럼 적의 포위를 일직선으로 밟아 넘어서며 명나라 진문으로 향하여 달리더라.

적병들은 이 돌발적인 사태를 만나 몹시 어리둥절할 뿐이더라. 난데없이 천지에 소나기가 퍼붓고 번갯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하니 어느 누구라도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적병들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으랴. 그들은 이 사태를 운명에 맡길 뿐이더라. 아무리 비린도가 머리 위에서 번쩍번쩍하여도 그들은 다만 그것을 바라보며 쓰러질 따름이더라. 만리청총마는 그들을 갈대밭을 헤치듯 신속하게 통과하더라. 적장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무서운 천신이 명나라 군의 진문으로 향하여 달리는 것을 그대로 바라볼 뿐이더라.

적진은 삼시간에 시체가 산을 이루니, 이에 번갯불과 천둥에 놀라 얼굴을 숨긴 이들이 얼굴을 들었을 때는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하기만 하더라.

이 부인은 의병장 이 모(李某)라고 자기를 밝히며 명나라 진영으로 인도되니, 선봉장은 진문을 열어 대원수의 격분을 사지나 않을까 겁을 내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국진 역시 의병장을 서둘러 맞아들이라고 분부하더라.

그의 병세는 몹시 위중하더라. 그는 누운 채 손짓으로 명령할 뿐이더라. 이 부인은 그곳으로 달려가되, 눈물을 참느라고 어금니를 깨물어야 할 정도더라. 더구나 자신을 감추고 이 모(李某)라고 알리는 데에는 눈물 못지않는 인내가 필요하더라.

-작자미상, 「장국진전」

【문22】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 부인은 남편의 임신양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 ② 국진은 자신을 도우러 온 아내를 알아보고 매우 감동을 한다.
- ③ 적군은 이 부인의 등장으로 인해 매우 당황해하고 두려워한다.
- ④ 이 부인은 남장한 상태로 자신의 전생의 부모였던 용왕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문23】 다음 <보기> 중 위 글을 쓰기 위한 작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끼리 묶은 것은?

- < 보 기 > —
- ㉠ 인물의 정체를 추리해 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함.
 - ㉡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능력을 강조함.
 - ㉢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논평함.
 - ㉣ 전기적 요소를 사용하여 소설의 사실감을 높임.
 - ㉤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 전개에 입체감을 형성함.

- ① ㉠,㉡ ② ㉡,㉢ ③ ㉢,㉣ ④ ㉣,㉤

【문24】 다음 <보기>는 위 글의 공간적 배경과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공간의 변화]	[사 건]
공간 1	장국진의 위급함을 가족들이 알게 됨
공간 2	이 부인이 용궁으로 가 용왕을 만남
공간 3	이 부인이 명나라 진영으로 가 적군을 무찌름

- ① 이 부인은 공간 1에서 얻은 물건 덕에 공간 2로 갈 수 있었군.
- ② 이 부인은 공간 1에서 꿈을 통해 남편의 위기를 알아차리게 되었어.
- ③ 이 부인은 공간 2에서 만난 용왕 덕에 공간 3에서 남편을 속일 수 있었군.
- ④ 장국진은 공간 3에서 이 모 의병장이 이 부인임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하는군.

【문25】 다음 밑줄 그은 말 중 <보기>의 ‘일부 자립명사’의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보 기 > —

자립명사는 일반적으로 조사와 자유롭게 결합되지만, 일부 자립명사들은 조사와 결합될 때 상당한 제약이 있어, 하나 또는 몇몇의 조사만을 취하게 된다

- ① 제 생각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 ② 사회와 개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③ 그는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하였다.
- ④ 일은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